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주체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온 나라와 인민에게
따뜻한 새해인사를 보내
시며 깊은 신년사를
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세로운 영상을 우리면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을 어떻게 하면 선성히 더 높이 떠날 수 있겠는가 하는 근심으로 미움이 투기워진다고 하신 그의 뜨거운 말씀에 북답치는 적정으로 누구나 눈물을 절지 못하면 때가 였던 그때 같은데 어느덧 12월의 마지막 날을 맞이했다.

위대한 당의 병도따라 우리 조국 역사에 일찌기 없었던 특대사변, 민족사적 대성사를 성스러운 주체 100년대의 혁명실록에 또 한예지 아로새긴 푸한한 긍지속에 한해가 저물어간다.

반만년을 해아리는 우리 조국의 역사에서 한순간이라고도 할수 있는 주체 106년이 세계에 준 총격은 뿐만이었다.

당 제7차대회 결정판정을 위한 충전군의 첫째, 국방체제발정 5개년 전략수행에서 관전적의의를 가지는 데인 올해는 그 하루하루가 보통의 떡날, 천날도 대비할 수 없는 적동적인 나날이었다.

새해 정초부터 한해가 다 저우는 날까지 불철주야로 초강도 강행군을 이어가시며 우리 혁명을 위해 활동해온 이고선 경애하는 원수님의 주체 106(2017)년 혁명실록의 깊이를 더듬어보는 천만군민의 가슴 속에 회색의 위인을 담당 국가의 최고령도자로 높이 모시고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국력을 온 세상에 펼쳐온 영광의 나날에 대한 추억이 밀풀처럼 차오른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시었다.

『사회주의강국은 국력이 강하고 끊임없이 물성번영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끄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천재제일강국입니다.』

오늘도 혁명의 성산 배두산은 잊지 못할 역사의 그날을 전하고 있다.

민족의 속원을 이루어 이 조선의 강대한 힘이 온 세계를 진감한 《11월대사변》의 영광한 희성의 전 세계에 끌어들여 끌고있던 시각에 배두산에 오르시였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주체조선의 국력강화를 위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시었다.

『사회주의강국은 국력이 약하고 끊임없이 물성번영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끄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천재제일강국입니다.』

오늘도 혁명의 성산 배두산은 잊지 못할 역사의 그날을 전하고 있다.

민족의 속원을 이루어 이 조선의 강대한 힘이 온 세계를 진감한 《11월대사변》의 영광한 희성의 전 세계에 끌어들여 끌고있던 시각에 배두산에 오르시였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사회주의 내 조국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끄시여

에 거열히 서시여 창공을 치광고 높이 솟은 아이한 절벽과 눈부시게 아득한 천리수해를 이우도록 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리자마자 그의 뜨거운 말씀에 북답치는 적정으로 누구나 눈물을 절지 못하면 때가 였던 그때 같은데 어느덧 12월의 마지막 날을 맞이했다.

위대한 당의 병도따라 우리 조국 역사에 일찌기 없었던 특대사변,

민족사적 대성사를 성스러운 주체 100년대의 혁명실록에 또 한예지 아로새긴 푸한한 긍지속에 한해가 저물어간다.

반만년을 해아리는 우리 조국의 역사에서 한순간이라고도 할수 있는 주체 106년이 세계에 준 총격은 뿐만이었다.

당 제7차대회 결정판정을 위한 충전군의 첫째, 국방체제발정 5개년 전략수행에서 관전적의의를 가지는 데인 올해는 그 하루하루가 보통의 떡날, 천날도 대비할 수 없는 적동적인 나날이었다.

새해 정초부터 한해가 다 저우는 날까지 불철주야로 초강도 강행군을 이어가시며 우리 혁명을 위해 활동해온 이고선 경애하는 원수님의 주체 106(2017)년 혁명실록의 깊이를 더듬어보는 천만군민의 가슴 속에 회색의 위인을 담당 국가의 최고령도자로 높이 모시고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국력을 온 세상에 펼쳐온 영광의 나날에 대한 추억이 밀풀처럼 차오른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시었다.

『사회주의강국은 국력이 강하고 끊임없이 물성번영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끄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천재제일강국입니다.』

오늘도 혁명의 성산 배두산은 잊지 못할 역사의 그날을 전하고 있다.

민족의 속원을 이루어 이 조선의 강대한 힘이 온 세계를 진감한 《11월대사변》의 영광한 희성의 전 세계에 끌어들여 끌고있던 시각에 배두산에 오르시였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주체조선의 국력강화를 위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시였다.

『사회주의강국은 국력이 약하고 끊임없이 물성번영이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끄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천재제일강국입니다.』

오늘도 혁명의 성산 배두산은 잊지 못할 역사의 그날을 전하고 있다.

민족의 속원을 이루어 이 조선의 강대한 힘이 온 세계를 진감한 《11월대사변》의 영광한 희성의 전 세계에 끌어들여 끌고있던 시각에 배두산에 오르시였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주체조선의 국력강화를 위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시였다.

『사회주의강국은 국력이 약하고 끊임없이 물성번영이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끄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천재제일강국입니다.』

오늘도 혁명의 성산 배두산은 잊지 못할 역사의 그날을 전하고 있다.

민족의 속원을 이루어 이 조선의 강대한 힘이 온 세계를 진감한 《11월대사변》의 영광한 희성의 전 세계에 끌어들여 끌고있던 시각에 배두산에 오르시였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주체조선의 국력강화를 위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시였다.

『사회주의강국은 국력이 약하고 끊임없이 물성번영이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끄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천재제일강국입니다.』

오늘도 혁명의 성산 배두산은 잊지 못할 역사의 그날을 전하고 있다.

민족의 속원을 이루어 이 조선의 강대한 힘이 온 세계를 진감한 《11월대사변》의 영광한 희성의 전 세계에 끌어들여 끌고있던 시각에 배두산에 오르시였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주체조선의 국력강화를 위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시였다.

『사회주의강국은 국력이 약하고 끊임없이 물성번영이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끄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천재제일강국입니다.』

오늘도 혁명의 성산 배두산은 잊지 못할 역사의 그날을 전하고 있다.

민족의 속원을 이루어 이 조선의 강대한 힘이 온 세계를 진감한 《11월대사변》의 영광한 희성의 전 세계에 끌어들여 끌고있던 시각에 배두산에 오르시였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주체조선의 국력강화를 위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시였다.

『사회주의강국은 국력이 약하고 끊임없이 물성번영이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끄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천재제일강국입니다.』

오늘도 혁명의 성산 배두산은 잊지 못할 역사의 그날을 전하고 있다.

민족의 속원을 이루어 이 조선의 강대한 힘이 온 세계를 진감한 《11월대사변》의 영광한 희성의 전 세계에 끌어들여 끌고있던 시각에 배두산에 오르시였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주체조선의 국력강화를 위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시였다.

『사회주의강국은 국력이 약하고 끊임없이 물성번영이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끄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천재제일강국입니다.』

오늘도 혁명의 성산 배두산은 잊지 못할 역사의 그날을 전하고 있다.

민족의 속원을 이루어 이 조선의 강대한 힘이 온 세계를 진감한 《11월대사변》의 영광한 희성의 전 세계에 끌어들여 끌고있던 시각에 배두산에 오르시였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주체조선의 국력강화를 위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시였다.

『사회주의강국은 국력이 약하고 끊임없이 물성번영이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끄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천재제일강국입니다.』

오늘도 혁명의 성산 배두산은 잊지 못할 역사의 그날을 전하고 있다.

민족의 속원을 이루어 이 조선의 강대한 힘이 온 세계를 진감한 《11월대사변》의 영광한 희성의 전 세계에 끌어들여 끌고있던 시각에 배두산에 오르시였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주체조선의 국력강화를 위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시였다.

『사회주의강국은 국력이 약하고 끊임없이 물성번영이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끄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천재제일강국입니다.』

오늘도 혁명의 성산 배두산은 잊지 못할 역사의 그날을 전하고 있다.

민족의 속원을 이루어 이 조선의 강대한 힘이 온 세계를 진감한 《11월대사변》의 영광한 희성의 전 세계에 끌어들여 끌고있던 시각에 배두산에 오르시였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주체조선의 국력강화를 위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시였다.

『사회주의강국은 국력이 약하고 끊임없이 물성번영이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끄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천재제일강국입니다.』

오늘도 혁명의 성산 배두산은 잊지 못할 역사의 그날을 전하고 있다.

민족의 속원을 이루어 이 조선의 강대한 힘이 온 세계를 진감한 《11월대사변》의 영광한 희성의 전 세계에 끌어들여 끌고있던 시각에 배두산에 오르시였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주체조선의 국력강화를 위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시였다.

『사회주의강국은 국력이 약하고 끊임없이 물성번영이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끄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천재제일강국입니다.』

오늘도 혁명의 성산 배두산은 잊지 못할 역사의 그날을 전하고 있다.

민족의 속원을 이루어 이 조선의 강대한 힘이 온 세계를 진감한 《11월대사변》의 영광한 희성의 전 세계에 끌어들여 끌고있던 시각에 배두산에 오르시였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주체조선의 국력강화를 위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시였다.

『사회주의강국은 국력이 약하고 끊임없이 물성번영이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끄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천재제일강국입니다.』

오늘도 혁명의 성산 배두산은 잊지 못할 역사의 그날을 전하고 있다.

민족의 속원을 이루어 이 조선의 강대한 힘이 온 세계를 진감한 《11월대사변》의 영광한 희성의 전 세계에 끌어들여 끌고있던 시각에 배두산에 오르시였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주체조선의 국력강화를 위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시였다.

『사회주의강국은 국력이 약하고 끊임없이 물성번영이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끄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천재제일강국입니다.』

오늘도 혁명의 성산 배두산은 잊지 못할 역사의 그날을 전하고 있다.

민족의 속원을 이루어 이 조선의 강대한 힘이 온 세계를 진감한 《11월대사변》의 영광한 희성의 전 세계에 끌어들여 끌고있던 시각에 배두산에 오르시였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주체조선의 국력강화를 위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시였다.

『사회주의강국은 국력이 약하고 끊임없이 물성번영이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끄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천재제일강국입니다.』

오늘도 혁명의 성산 배두산은 잊지 못할 역사의 그날을 전하고 있다.

민족의 속원을 이루어 이 조선의 강대한 힘이 온 세계를 진감한 《11월대사변》의 영광한 희성의 전 세계에 끌어들여 끌고있던 시각에 배두산에 오르시였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주체조선의 국력강화를 위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시였다.

『사회주의강국은 국력이 약하고 끊임없이 물성번영이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끄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천재제일강국입니다.』

오늘도 혁명의 성산 배두산은 잊지 못할 역사의 그날을 전하고 있다.

민족의 속원을 이루어 이 조선의 강대한 힘이 온 세계를 진감한 《11월대사변》의 영광한 희성의 전 세계에 끌어들여 끌고있던 시각에 배두산에 오르시였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주체조선의 국력강화를 위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시였다.

『사회주의강국은 국력이 약하고 끊임없이 물성번영이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끄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천재제일강국입니다.』

오늘도 혁명의 성산 배두산은 잊지 못할 역사의 그날을 전하고 있다.

민족의 속원을 이루어 이 조선의 강대한 힘이 온 세계를 진감한 《11월대사변》의 영광한 희성의 전 세계에 끌어들여 끌고있던 시각에 배두산에 오르시였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주체조선의 국력강화를 위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시였다.

『사회주의강국은 국력이 약하고 끊임없이 물성번영이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끄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천재제일강국입니다.』

오늘도 혁명의 성산 배두산은 잊지 못할 역사의 그날을 전하고 있다.

민족의 속원을 이루어 이 조선의 강대한 힘이 온 세계를 진감한 《11월대사변》의 영광한 희성의 전 세계에 끌어들여 끌고있던 시각에 배두산에 오르시였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만방에 힘있게 과시한 대승리의 해 2017년

우리식대로, 우리힘으로!

힘계는 말할수 없다. 정昧하게 둘
아볼수 없다.

최대사변과 민족사적경사, 기적과 신
화로 충만된 2017년!

하루를 일년, 심년 및찰이로 내달
린 그 날과 달들에 우리는 깊이 한
마와 맘을 바쳐 조국성사에 투기 할
위대한 승리, 민족사적사변들을 자랑
스럽게 알아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
김정운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시간과 정의는 우리 편에 있
으며 우리의 자강력은 업속한 시
련속에서 천백배로 강해지고 있습
니다.』

지난 1월 경양기방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하신
말씀이 뜨겁게 되새겨진다.

우리가 만든 멋쟁이 개방을 봐고 하
자로 오가며 웃고 떠들 아이들의 모습

이 떠올라 마음이 흥그려워진다!

우리가 일떠세운 공장에서 우리의
원료와 자재를 가지고 만든 가방을
우리 아이들과 인민들에게 안겨주게 된
것이 너무도 기쁘시어 우리라는 부름
을 그 몇번이나 풀었으실 때 인민은 다
는 물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심중에 고개치면 위대한 인민사랑의
세계를.

『시간과 정의는 우리 편에 있
으며 우리의 자강력은 업속한 시
련속에서 천백배로 강해지고 있습
니다.』

우리의 것을 가지고 만든 진발들을
보니 절망 힘이 나오고 기분이 좋다고
하시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자랑의 참뜻이 되새겨질수록 수도 평
양에서 진행된 뜻깊은 자리개설행렬
식이 잊혀지지 않는다.

새형의 8·0hp트랙포르트를과 5t급
화물자동차들이 수도의 거리들을 탐
리면 그날 우리 인민은 코나큰 긍지
와 자부심으로 가슴풀이었다.

불더불수록 인민생활항상에 절실히
필요한 제품들이 특조처럼 쓸어지는것
으로 새해의 첫 대문이 열렸다고 하시면
그이의 말씀이 가슴을 울린다.

세계적으로 이름난 운동선수들 파
당당히 경출 수 있는 류현신발은 얼

마나 우리 인민들과 아이들을 기쁘
게 하였던가.

우리의 것을 가지고 만든 진발들을
보니 절망 힘이 나오고 기분이 좋다고
하시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자랑의 참뜻이 되새겨질수록 수도 평

양에서 진행된 뜻깊은 자리개설행렬
식이 잊혀지지 않는다.

새형의 8·0hp트랙포르트를과 5t급
화물자동차들이 수도의 거리들을 탐

리면 그날 우리 인민은 코나큰 긍지
와 자부심으로 가슴풀이었다.

8·0hp트랙포르트를과 5t급
화물자동차들이 수도의 거리들을 탐

리면 그날 우리 인민은 코나큰 긍지
와 자부심으로 가슴풀이었다.

로도 신설이 빼내해졌다.

새형의 트랙포르트는 단순한 통전기
제가 아니었다. 적대세력들의 몽태의

쇠사슬을 무자비하게 끌고 경제강국
의 지름길을 힘차게 열어제끼는 자

력 자강의 무쇠를 마쳤다.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이 차

기의 힘을 밟고 평화일어나 만들어

낸 주체조선의 트랙포르트와 자동차들

은 전대미문의 살인적인 제재에 명

줄을 건 원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호원

강대를 안겼다.

적대세력들의 발악이 거듭될수록 더

우대 강해지는 불굴의 정신력으로 우

리 인민은 쇠불을 짚었고 포구미다에

서 《비단민족가를 더 높이 올렸다. 세

계급지의 대금모축산기지를 새로등관

에 일떠세워 수수천년 버원발언 황무

지를 사회주의청춘대지로 전변시켰다.

미친 송년이 무미들을 전풀케 하며 당

제7차대회 결정관찰을 위한 첫해에 세

상이 무덤도록 최한한 파일대풍을 안

아왔다. 땀젖은 금매달로 영웅조선의

공화국기를 세계의 창공높이 날렸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보시고

터령거리 준공식을 성포한 뜻깊은

4월에 진행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군중시위장에 넘치던 만대의 활호성이

귀천에 메아리쳐온다.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자기 힘을 글

게 밟고 자력자강의 위대한 통력으로

평명한 미래를 향해 폭풍노도쳐나가는

우리의 전진을 그 누가 가로막으랴.

않는다는것을 온 세계에 선언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

그이는 시련과 역경이 백결천결
및 쌓인다 해도 끝두의 용격정신과
강의한 기질로 화를 복으로 복을 대
한 복으로 만들어 주체조선의 승리

의 대통로를 열어주시었다.

그이와 숭정도 밭걸음을도 같이하면
세인을 놀라우는 기적을 탄생시킬수
있다는 신념이 어디서나 시대 술걸로
매력을 2017년을 충족하며 우리

는 긍지높이 자부한다.

우리식대로 우리힘으로 우리가 마
음먹은것은 다할수 있다!

공화국창건 70돐이 되는 뜻깊은

세례를 맞이하는 천만군민의 기쁨과

승은 새로운 두상과 위훈상조의 혁

명적일정으로 충만되어있다.

세계를 향고 올라 세계를 굽어보며

주체조선의 위용을 민왕에 펼치려라.

본사기자 조향선



위대한 강국의 시대를 안아온 우리 당에 최대의 영광을!

명곡 《어머니당에

드리는 노래》의 구절들을 새기며

조국사에 빼기 할 민족사적 대경사들과 위대한 승리로 수놓아진 뜻깊은 한해가 저물어간다.

이해의 날과 달들을 키크나온 걱정파들은 강회속에 둘러싸여 우리 군대와 인민은 주체의 사회주의 내 조국을 이 세상 가장 강대한 나라로 빛내여준 위대한 어머니당에 다짐없는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이며 조선혁명의 참모부입니다.』

자력자장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 전진을 힘차게 다그쳐온 주체 106(2017)년을 보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이 실장으로 부르는 한편의 노래가 있다.

따사로운 그 사랑 해빛처럼 우리를 축복하고

자애로운 그 손길 기발처럼 영광의 길로 이끄고

항도의 힘 품기하고 역세어 이 조선 제일 강대하여라

아 위대한 어머니 조선로동당

진군한 그 이름 부르며 감사의 노래 드리네

…

들으면 들수수록 억센 힘이 용솟음치고 새기면 새길수록 승리자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가슴벅차오는 명곡 『어머니당에 드리는 노래』.

세상을 놀래우는 충격적인 사건들과

기적적인 성과들로 충만한 경동적인 2017년을 승엽한 추억속에 둘러싸

보는 이 시각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

슴속에 명곡의 구절들이 그처럼 뜨겁게 새겨지는 것은 파란 무었 때문인가. 그것은 바로 이 노래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영원히 기역할 위해 한 승리의 자

우여 어려워 그처럼 바라면 꿈과 희

상을 실현해준 우리 당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이 응축되어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걸어온 2017년의 두생의

길은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었다. 남들

같으면 뺏던 손을 들고 나왔았을

엄혹한 시련과 난관을 헤쳐야 했고 상상도 하지 못할 원부들의 악랄한 제재 입찰제도에 우리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러나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는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제재나 통제도 통하지 않았다. 천만군민이 위대한 당의 두려움에 역적같이 풍적 사상의 힘으로 전진하고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로 위력하며 자주로 존엄높은 정치사상강국의 기상과 님김없이 떨쳤다.

『3·1 항쟁』, 『7·4 혁명』,

7·28의 거창한 전변의 나날 천만군민의 심장속에는 당의 위대성은 품수령의 위대성이며 조국과 인민, 혁명의 운동과 수령의 명도에 달려있다

그 어떤 침략식도 끔찍한 힘을 없는 천하무적의 강력한 힘을 온 세상에

파시하였다. 억만금을 준데도, 목숨을 바친데도 절대 바꿀 수 없는 당조선의 존엄과 민족의 창왕의 미래를 위하여 산악간이 떨쳐나선 천만군민의 영웅적진영은 원쑤들을 전몰시켰으며 눈부신 성과를 인정하였다.

국력이 강하고 불같이 용성번영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무림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천하제일의 사회주의 강국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달과 글로벌이 아니라

지금 2017년의 날과 달들이 우리 군대와 민족의 창왕의 미래를 위하여 산악간이 떨쳐나선 천만군민의 영웅적진영은 원쑤들을 전몰시켰으며 눈부신 성과를 인정하였다.

이해의 힘과 함께 우리 군대와 인민은 대승기 되고 노래가 되어 울려나온 것이다.

모건 풍과 다 이긴 그 예지는 기적의 시대 열고

천민소원 풀려준 그 인력은 영웅인민을 키우네

열정진걸 그 자속을 따라서 행복의 꿈은 만발하여라

아 위대한 어머니 조선로동당

풀없이 그 품에 안기며 한마음 풍처

반드네

이해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행위한 값비싼 승리는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빛나는 예지가 알아온 귀중한 결실이다.

병진의 보검을 역세계 털려온 천만

군민은 이해의 벼두부터 눈부신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였다. 일부들이 제야부의 밤비동치도 끄떡없이 지역 생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배심본들이 우리의 제품, 우리 삶을 팔팔 만들어냈고 사회주의 품질에 솔직된 려령지리를 비롯한 기념비적 장조물들을 도처에 일제화했다. 우리 로동계급이 만들어낸 정치자강의 창조물은 우리 청마들이 풍장들과 협동전장을 달려나갔다.

2017년의 거창한 전변의 나날 천만군민의 심장속에는 당의 위대성은 품수령의 위대성이며 조국과 인민, 혁명의 운동과 수령의 명도에 달려있다는 카운한 진리가 더욱 굳게 뿌려내려

되었다.

돌이켜 보면 이해는 정녕 위대한 수령님들의 거창한 전변의 나날 천만군민의 심장속에는 당의 위대성은 품수령의 위대성이며 조국과 인민, 혁명의 운동과 수령의 명도에 달려있다는 카운한 진리가 되었다.

하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뜻깊은 이에 대한 수령님과 불멸의 혼수님의 정신과 함께 품질과 품위로 사회주의 존엄과 존엄을 확립하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힘으로 힘을 모았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뜻깊은 이에 대한 수령님과 불멸의 혼수님을 보며 『어머니당에 드리는 노래』를 짧게 드렸다.

이 노래에 비친 두쟁의 세계, 혁명의 세계를 더욱 깊이 새겨들이며 위대한 강국의 존엄을 만방에 펼쳐주시고 광고하고 창상한 억만년미래를 펼쳐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가장 드리운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고자 한다.

우리 모든 승리가 시작되고 끝없이 빛나는 품

이름답고 눈부신 앞날만을 한탄해 펼쳐여주네

백전백승 그 명도가 위대해 강국의 위상 및 밟지여라

아 위대한 어머니 조선로동당

불제의 그 기상 앙고서 우리는 미래로 가네

…

우리 모든 승리가 시작되고 끝없이 빛나는 품

이름답고 눈부신 앞날만을 한탄해 펼쳐여주네

백전백승 그 명도가 위대해 강국의 위상 및 밟지여라

아 위대한 어머니 조선로동당

불제의 그 기상 앙고서 우리는 미래로 가네

…

우리 모든 승리가 시작되고 끝없이 빛나는 품

이름답고 눈부신 앞날만을 한탄해 펼쳐여주네

백전백승 그 명도가 위대해 강국의 위상 및 밟지여라

아 위대한 어머니 조선로동당

불제의 그 기상 앙고서 우리는 미래로 가네

…

우리 모든 승리가 시작되고 끝없이 빛나는 품

이름답고 눈부신 앞날만을 한탄해 펼쳐여주네

백전백승 그 명도가 위대해 강국의 위상 및 밟지여라

아 위대한 어머니 조선로동당

불제의 그 기상 앙고서 우리는 미래로 가네

…

우리 모든 승리가 시작되고 끝없이 빛나는 품

이름답고 눈부신 앞날만을 한탄해 펼쳐여주네

백전백승 그 명도가 위대해 강국의 위상 및 밟지여라

아 위대한 어머니 조선로동당

불제의 그 기상 앙고서 우리는 미래로 가네

…

우리 모든 승리가 시작되고 끝없이 빛나는 품

이름답고 눈부신 앞날만을 한탄해 펼쳐여주네

백전백승 그 명도가 위대해 강국의 위상 및 밟지여라

아 위대한 어머니 조선로동당

불제의 그 기상 앙고서 우리는 미래로 가네

…

우리 모든 승리가 시작되고 끝없이 빛나는 품

이름답고 눈부신 앞날만을 한탄해 펼쳐여주네

백전백승 그 명도가 위대해 강국의 위상 및 밟지여라

아 위대한 어머니 조선로동당

불제의 그 기상 앙고서 우리는 미래로 가네

…

우리 모든 승리가 시작되고 끝없이 빛나는 품

이름답고 눈부신 앞날만을 한탄해 펼쳐여주네

백전백승 그 명도가 위대해 강국의 위상 및 밟지여라

아 위대한 어머니 조선로동당

불제의 그 기상 앙고서 우리는 미래로 가네

…

우리 모든 승리가 시작되고 끝없이 빛나는 품

이름답고 눈부신 앞날만을 한탄해 펼쳐여주네

백전백승 그 명도가 위대해 강국의 위상 및 밟지여라

아 위대한 어머니 조선로동당

불제의 그 기상 앙고서 우리는 미래로 가네

…

우리 모든 승리가 시작되고 끝없이 빛나는 품

이름답고 눈부신 앞날만을 한탄해 펼쳐여주네

백전백승 그 명도가 위대해 강국의 위상 및 밟지여라

아 위대한 어머니 조선로동당

불제의 그 기상 앙고서 우리는 미래로 가네

…

우리 모든 승리가 시작되고 끝없이 빛나는 품

이름답고 눈부신 앞날만을 한탄해 펼쳐여주네

백전백승 그 명도가 위대해 강국의 위상 및 밟지여라

아 위대한 어머니 조선로동당

불제의 그 기상 앙고서 우리는 미래로 가네

…

우리 모든 승리가 시작되고 끝없이 빛나는 품

이름답고 눈부신 앞날만을 한탄해 펼쳐여주네

백전백승 그 명도가 위대해 강국의 위상 및 밟지여라

아 위대한 어머니 조선로동당

불제의 그 기상 앙고서 우리는 미래로 가네

…

우리 모든 승리가 시작되고 끝없이 빛나는 품

이름답고 눈부신 앞날만을 한탄해 펼쳐여주네

백전백승 그 명도가 위대해 강국의 위상 및 밟지여라

아 위대한 어머니 조선로동당

불제의 그 기상 앙고서 우리는 미래로 가네

…

우리 모든 승리가 시작되고 끝없이 빛나는 품

이름답고 눈부신 앞날만을 한탄해 펼쳐여주네

백전백승 그 명도가 위대해 강국의 위상 및 밟지여라

아 위대한 어머니 조선로동당

